



2026년 10월 4일(제1320호) 연중 제27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리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 임자와 소작인들의 비유’입니다. 포도밭을 맡기고 떠나간 주인은 포도철이 되어 소출을 받아오도록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종들은 매 맞고 쫓겨나가거나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존중해주길 바라면서 아들을 보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상속 재산을 차지하고자 아들까지도 던져 죽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포도, 포도나무, 포도밭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인 기후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 포도와 떼어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포도는 일상적인 의미와 더불어 성경 속에서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으로서 등장합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살펴봅시다. 포도밭 주인, 소작인, 종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포도밭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소출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작인들은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이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말을 듣기는커녕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을 성실히 준비하시고 소작인들에게 내어주시는 모습, 종들이 박대를 당하고 죽더라도 아들까지 보내시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지요.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나무라십니다. 공정을 바라셨으나 피를 흘리고, 정의를 바라셨으나 울부짖는 상황이 당신의 포도밭,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기에 이를 들포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작인들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 즉 자신들이 상속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헛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포도밭을 빼앗겨 소출을 내는 다른 이들, 다른 민족들에게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제1독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와 공정을 소홀히 한 헛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정의와 공정이 당신 백성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포도밭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안의 포도밭을 성심을 다해 가꾸고 그 소출을 하느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오로 사도는 제2독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이를 통해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을 쳐내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포도밭을 일구어 가는 데 한몫을 보태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면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청해봅시다. 아멘.



이항유(미키엘) 신부
명성대(공군 제8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이사 5,1-7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필리 4,6-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21,33-43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진주교 군종교구시(군 시묵 50년사)

김 신부가 진해 해군통제부의 군종과장으로 부임하여 군종실 천막 임시 교회에서 첫 주일미사를 봉헌하였을 때 참례자는 장교 2명과 사병 3명뿐이었다. 그런데 미사가 끝난 후 열린 개신교 예배에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김 신부는 실망하지 않고 세부 일정표를 작성하여 부대들을 순방하면서 천주교의 실태를 파악해 나갔다. 고급 장교들에게는 믿으라는 말대신 신심 서적을 나누어 주었고, 철학강사로 나가던 삼균 사관학교에서는 강의 시간 틈틈이 생도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피난 온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수녀 2명을 초빙하여 해군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전상 장병들을 돌보게 하였다. 병원 당국은 천주교 활동이 활발해지자 병원 안의 방 2개를 천주교에 제공하였고, 수녀들은 그 방들을 숙소와 교리실로 활용하여 1년도 되지 않아 영세자를 배가시켰다.

1953년 4월 10일, 김 신부는 대구교구의 협조를 얻어 진해지역의 인근 본당들과 공동으로 ‘군민 합동 성체대회’를 개최하였다. 진해 군인 교회 강당에서 수천 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된 이 대회는 대구교구장 최덕홍 주교가 집전한 미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성체를 모시고 시가 행진에 들어갔는데 행렬의 선두에는 십자가와 해군 군악대가, 그 다음에는 유치원 원아들과 각 학교와 교회 단체가 섰으며, 마지막에는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장교단이 따랐다. 이 행사를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차출되었고 각군에서 7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되었다. 이 성체 대회는 군인들뿐 아니라 진해 지역의 천주교 전교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김 신부는 해군통제부뿐 아니라 해군병원에서의 전교에도 주력하였고, 미국 유학 중이던 남상기(미카엘) 대령의 주선으로 미 해병대 본부의 세 명의 군종신부(D. F. Mcehan, D. E. Kelly, E. L. Richrson)로부터 신학, 철학, 교육 서적 및 성인전 200여 권을 기증받아 천주교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종교구시(군 시묵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종교구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좋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한 자리에.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좋은 이들과 함께합니다. 이곳에 서는 것만으로.
맘 편한 이들과.

이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종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종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선정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마르틴 판 니우엔호비의 두 폭 제단화



한스 멤링(Hans Memling)

1487년 제작

파넬에 유채

각 패널 33.5 × 44.7cm

액자 포함 41.5 × 52.5cm

성 요한 병원, 벨기에 브뤼헤

스미트 히스토리에 기고한 미술사학자

레이철 칼리일 박사의 글을 4주에

걸쳐 의역·요약하여 발췌

본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젊은 브뤼헤 상류층 시민의 정체성과 신앙, 사회적 지위를 모두 담아낸 복합적인 기도용 작품이다. 의뢰인 마르틴 판 니우엔호비는 스물세 살에 이 도시 최고의 초상화가였던 멤링에게 이 작은 두 폭 제단화를 주문했고, 멤링은 성모님과 주문자를 마주 보게 배치해 사적인 종교 체험과 세속적 초상이 한 화면 안에서 교차하도록 설계했다. 15세기 작품 중 드물게도 두 패널이 원래 액자와 경첩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귀족·부유 상인층이 집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소형 두 폭화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한스 멤링은 독일 출신으로 로히에르 판 데르 베이덴(Rogier Van der Weyden)의 화실에서 수련했을 가능성이 크며, 1465년부터 북서 유럽 최대의 상업·문화 도시였던 브뤼헤에 정착했다. 수로를 통해 북해와 연결된 브뤼헤는 “온 세상의 만남의 장소”라 불릴 정도로 국제적인 도시였고, 부르고뉴 궁정 인사, 지역 유력가,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멤링의 후원자가 되었다. 정교한 묘사와 세련된 장신구·의상 표현에 능숙했던 한스 멤링의 작품은 1480년대 중반에 특히 이탈리아 상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왼쪽 패널에는 아름다운 푸른 옷과 붉은 망토를 걸친 성모님과 앞쪽 베개 위에 앉은 아기 예수님이 보이는데, 사과를 향해 손을 내미는 아기 예수님의 손동작은 에덴동산의 금단의 열매와 원죄, 그리고 장차 맞이할 십자가 수난을 예고한다. 오른쪽 패널에는 자주색 벨벳 더블릿과 고급 외투를 입은 마르틴이 책을 읽다 방금 멈춘 듯한 순간,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풍성한 직물과 보석, 수입 카펫 등은 그의 부와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고, 한편으로는 성모님의 보석이 박힌 옷과 진주 장식을 정교하게 묘사함으로써 천상의 위엄을 시각화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7주일: 회랑 김상훈 신부

◆ 교구장 동정

- 무열대(제2작전사령부) 성당 사목방문

때: 10월 4일(주일)

◆ 교구 행사

- 제59회 군인 주일

때: 10월 10일(토) ~ 11일(주일)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